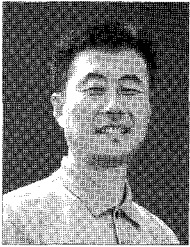


2010년도 육계산업 전망

2010년도 종계 · 부화업 전망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얼마 전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모았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조추첨이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오는 6월 12일부터 한달 여 간 치러질 남아프리카 월드컵 본선 일정이 확정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죽음의 조에는 속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6강 본선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06년 독일에서 개최된 월드컵을 통해 대형 스포츠 행사가 외식산업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경험한 바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리나라는 7시간이라는 시차가 있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경기가 열리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밤샘응원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06년 토고전이 있던 날 단 하루 만에 200여만수의 치킨이 소비되어 평균 일일 판매량의 약 2배가 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닭고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인 행사는 축제인 동시에 닭고기 소비증대라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 대단히 행복한 일이다.

2010년은 양계인들에게 월드컵과 같이 축구를 즐기는 즐거움과 치킨 소비가 늘어 소득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1. 국내 · 외의 경제 흐름

2009년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제가 회복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수출이 정상화되고, 내수도 회복되어 경제 성장률이 4.5%를 상회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이다.

세계 경제 또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고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세금을 걷어 만든 인공적 부양책으로 리스크는 여전하고 엄청난 부채는 미해결 상태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론 또한 만만찮다. 어쨌든 매년 그렇듯이

2010년 또한 기대와 불확실성이 공존할 것이라는 분석만이 가장 확실한 지배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2. 닭고기 수입의 움직임

외환 전문가들은 2010년 상반기 말의 환율이 1,120~1,130원대로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경상수지 흑자이다. 국내 요인으로는 지난 2009년 9월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32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와 외화차입여건 개선을 들 수 있다.

국외로는 세계 금융불안 완화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되어 금융불안의 해소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둔화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이 없다는 전제하에 환율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계업계로 보면 2009년 하반기에 환율이 1,150원선을 유지하며 안정되자 닭고기 수입량이 늘었듯이 환율 변동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2010년에도 닭고기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높다.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닭고기 수입은 결국 국내 양계산업으로



보면 반가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3. 환율안정과 국제곡물가격

2010년 국제 곡물가격은 현재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곡물 수급이 2009년 균형에서 2010년에는 약간의 불균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성은 지난 2년간 곡물의 생산증가로 곡물가격이 하락

2010년도 육계산업 전망

2010년도 종계 · 부화업 전망

함에 따라 곡물과종이 감소해 2010년 곡물 생산량이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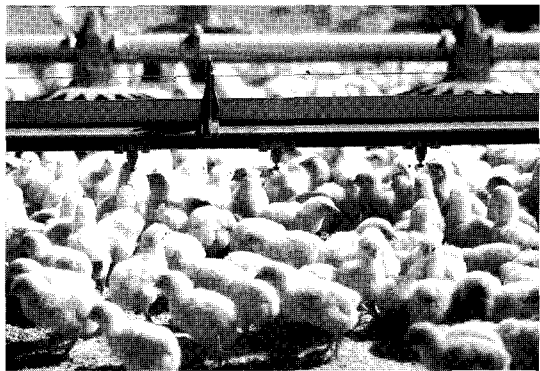
반면 세계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면서 곡물 소비량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곡물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해도 곡물재고율은 21% 수준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다만 2010년 생산량 감소가 확실하게 예상되고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며, 다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면 곡물에 대한 투기수요가 증가해 곡물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여지는 상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게 되지만 우선적으로 **환율과 곡물 수급이 안정된다면 사료가격은 새해 상반기까지는 그런대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등락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4. 국제 생산재 소비 변동

2010년 유가흐름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세계 경제, 그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 시기와 속도로 보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각종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면서 경기회복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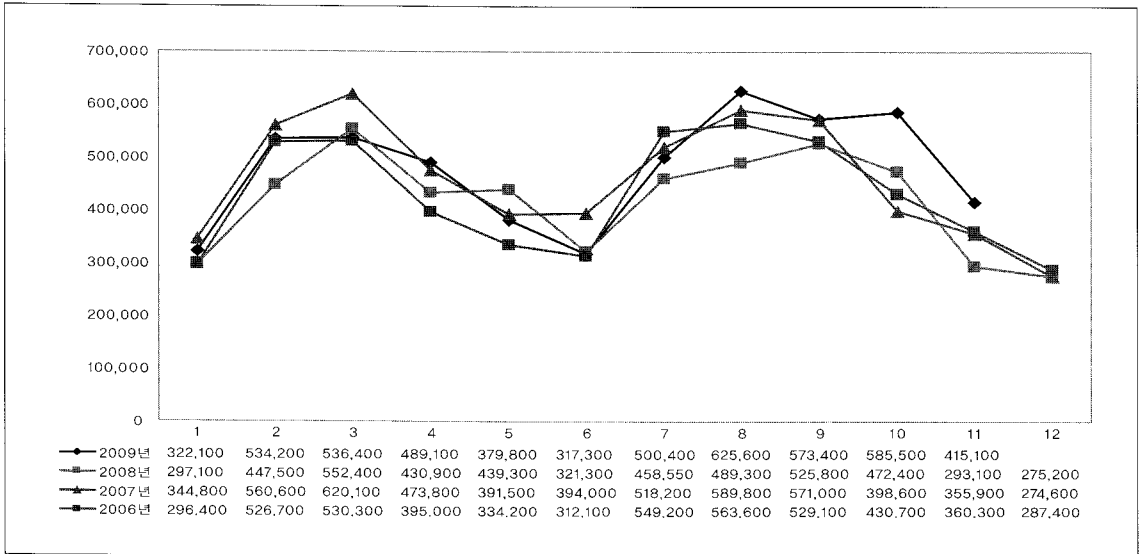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낸다면 석유수요도 그만큼 빠르게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원유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만큼 원가부담이 커져 농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5. 종계 생산성이 향상되면?

2009년 내내 병아리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종계의 생산성 저하 문제였다. 2008년과 2009년 상반기 종계 입식수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병아리 가격이나 실제 성적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종계장에서는 종계 병아리 품질, 품종, 사료 품질 등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육계 농장에서는 정확한 사양관리, 차단방역 문제

〈표 1〉 지난 4년간 증계분양 현황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만연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 논쟁을 하기보다는 같은 배를 탄 동반자 입장에서 부화장은 농가에 질 좋은 병아리와 함께 사양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 역시 질병을 차단하고, 예전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에 주의한다면 2010년에는 생산성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2009년 하반기의 증계분양수수(수입포함)가 증가함으로써 하반기 이후에는 병아리 과잉생산이 우려된다.

6. 신종플루와 조류인플루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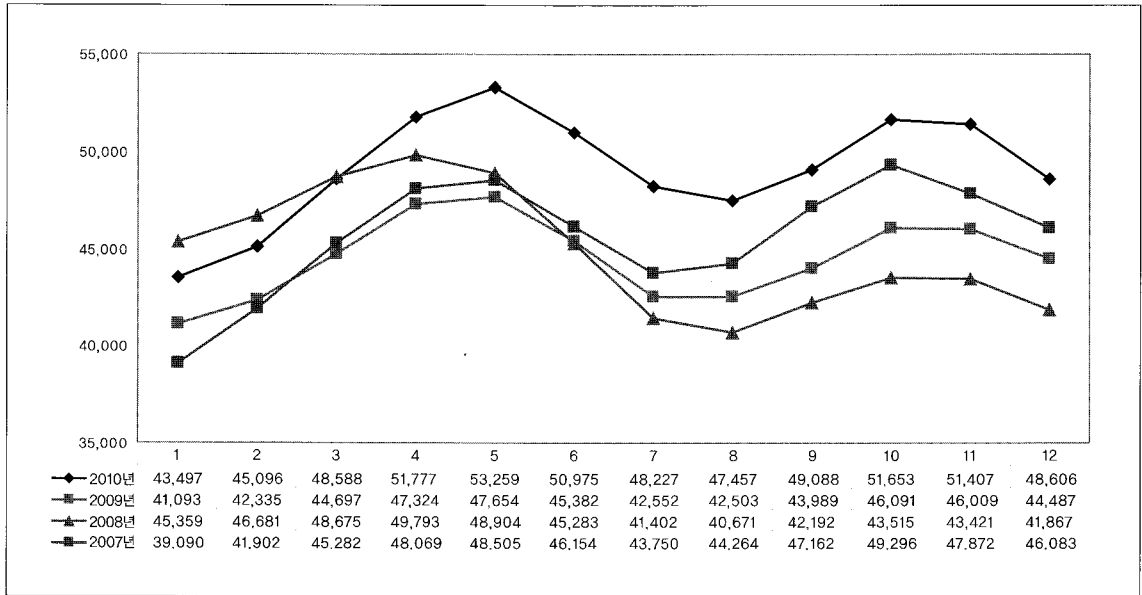
지난해 어김없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철새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매년 그렇듯이 모든 양계인들은 겨울이 되면 걱정이지만 지난해 특히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세계적으로 떠들썩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신종플루 때문이다.

일부 앞서나가는 전문가들은 신종플루와 조류인플루엔자가 만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 섞인 목소

2010년도 육계산업 전망

2010년도 종계 · 부화업 전망

〈표 2〉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추정



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려하는 상황이 될 경우 양계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손실을 주므로 상상과 가설로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역당국은 물론 개별 농가까지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7. 통계로 본 2010년 생산전망

〈표 1〉에서 보듯이 2009년의 종계입식수수는 2008년에 비해 약 50만수 증가했다. 특히 10월과 11월에 수입물량이 12만수나 추가되어 하반기에만 300만수 가까이 입식된 종계로 인해 **금년 4월 이후 병아리 생산잠재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 이후 종계의 생산성 회복까지 이루어질 경우 과잉생산이 우려되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